



미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들었다

사형 폐지 촉구 문화제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부처님은 <대방편불보은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같이, 온갖 삼계(三界)의 유형(有形)·무형(無形)·사족(四足)·다족(多足)과, 내지는 저 개미라 할지라도 생명을 지닌 것들은 다 죽음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목숨을 잃게 된다고도 남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지 아니한다.”

11월은 종교계가 정한 ‘사형 폐지 촉구 문화제’이자 ‘생명문화 정착의 달’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교·개신교·원불교·천도교·유교 등으로 구성된 사형제도 폐지 범종교연합이 11월 한 달 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연다고 한다.

천주교 정평위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형 반대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4월 다른 종교단체와 연대한 범종교연합을 구성한 이후 사형 폐지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종교계 차원의 활동을 해왔다.

“사형은 형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살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범종교연합은 사형제도의 부조리와 반생명·반종교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문화제를 마련했다.

11월 1일~10일까지 서울 명동 마루소극장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극제가 진행되고, 11월 7일~17일 서울 인사동 학교재 회랑에서는 서양화가 강익중, 판화가 남궁산 등 유명작가 29명이 참가하는 ‘생명’으로의 초대전’이 열린다. 11월 11일에는 열린음악회 형식의 대규모 시민음악회 ‘그.가.떠.날.콘서트’가 KBS홀에서 열린다. 특히 이 자리엔 김수환 추기경이 특별 출연해 생명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같은 문화 행사 외에 범종교연합은 11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일본·인도·대만·필리핀 등 아시아국가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제연대모임 ‘2001 사형 폐지 아시아포럼’을 열고, 국내외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사형폐지 촉구 선언문’도 발표한다.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금수·벌레·천인 가운데 살려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 때는,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띄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 결코 무기를 가해 그 목숨을 끊지 말며, 측은히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머니같이 대할 일이다. <아난사사경>”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라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사형 폐지 촉구 문화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불자들이 또한 ‘불살(不殺)은 불종(佛種)이요, 대자심(大慈心)은 양약(良藥)이요, 대비(大悲)는 편안한 경지여서, 거기에는 끝내 노사(老死)의 변화가 없다.<천불인특경>”는 말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은자 기자

“분노와 아픔 안으로 삭이고 정의 되살리길”

질병과 가난이 떠나지 않는 척박한 땅 인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절대 가난. 그러나 그곳에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병원과 유치원 건립 등 구호를 위해 인도에 머물렀던 법륜스님이 현지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안으로 녹임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편집자>

나는 지금 인도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이 곳은 인도의 한 오지입니다. 2600여 년 전에 ‘고오타마 싯다르타’라는 한 젊은이가 당시 인도 전역이 전쟁의 혼란 속에 휩싸여 있을 때,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하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6년 간 고뇌했던 전정각산(轉正각山) 아래입니다.

이 곳은 불가족 천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 곳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흙집에서 삽니다. 의뢰 시설이나 의료 혜택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어제 또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달러나 되는 미국인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마치 세계가 곧 무너질 것 같은 큰 재앙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이 곳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법륜스님 (좋은벗들 이사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평화는 분노 속에서 얻을 수 없으며, 행복은 화평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번에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들 공격자들도 분명히 누군가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 아니면 세계화에 대해, 자본에 대해, 아니면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해... 분노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건물에 부딪쳤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자신도 타인도 해치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이며,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비난받아 할 바보짓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지금 당신들 미국 시민들에게도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을 향해 공격할 때 당신들 미국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분노할 것이고, 그 분노는 또 다시 당신들에게도, 아니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모든 분노는 또다시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라덴이라는 한 사람, 아프카니스탄이라는 가난한 한 나라를 무차별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곳에서 당신들이 겪는 아픔과 분노를 보면서 당신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의 자중과 돌이킴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볼 때는 매우 마뜩찮은 조언이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제 가슴 속에 1906년 중국 하

얼빈역에서 일본 외무대신 ‘이토오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을 ‘의사’라 부르며 존경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무찌른 서산·사령대사를 스승으로 섬기는 한, 제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회의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아픔과 분노를 외부의 대상을 찾아 보복하지 않고 스스로 안으로 돌이켜 보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던 진정한 세계평화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때에, 나는 감히 미국 시민 여러분에게 분노를 안으로 삭이고 이성을 되찾을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외국을 여행하기 전까지는 내 나라와 민족의 아픔만을 생각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아픔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의 침몰된 항공포함 박물관을 보면서 미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느꼈고,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 공원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분노와 아픔을 느꼈고, 중국의 장춘에서 일본 군인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한 박물관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이 낯선 땅 인도의 한 오지에서 이 곳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제가 내 민족과 나라만 생각하고 지구 저편의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을 외면한 삶에 대한 참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종말을 증언하는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지만, 사실 이곳 인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전 세계 통신문을 읽고 있으니 미국의 일이 세계의 일이 된 것이지, 사실은 이 지구상의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지니친 자존심을 가짐으로써 해서 상처가 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분노를 안으로 녹이는 것만이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선의와 정의가 되살아나길 중심으로 바랍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苦海에 빠진 중생

불자 세상보기

대한적십자사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이재민 지원 성금을 접수한 결과, 22일 오전까지 고작 1건 14만원이 접수된 반면, 한적이 지난달 12일부터 접수중인 미국 테러 사태 관련 성금은 지난 19일까지 2천894만93원이 접수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아프간 전쟁과 같은 큰 사태에 대해 이처럼 성금이 적게 접수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아마도 테러 주범으로 전해지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탈레반 정권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재민 지원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 국민들의 약 60% 이상이라는 종교인과 그들의 종교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걸림없는 큰 자비심’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실천을 강조하는 불교로서는 더더욱 철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자비는 무차별적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똑같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온갖 고통으로 윤회하는 중생들의 분별심과 망상에 치우친 견해로 보면 차등이 있겠지만, 부처님의 경계에서 보면 ‘누구나 동등하게 괴로움의 바다에서 윤회하

부처님께서는 오직 고통을 보셨을뿐 행위자를 보지 않았다

는 중생이며, 마음 한 번 고쳐먹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따르면 성불할 수 있는 존재’이다. 고통에 테러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의 고통이 따로 있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고통이 다르며, 탄저병 테러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달

러드는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도 감화시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부처님의 자비행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였을 뿐 아니라, 선악의 경계조차도 허물어버렸음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 오직 고통을 보셨을 뿐, 사람의 겉모습과 행위를 보지는 않으셨다. 고통은 고통일 뿐 인종과 종교적 신념, 성별과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음을 안다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고통과 테러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고통은 돌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불교의 지혜이며, 이런 정신에서 나온 자비만이 궁극적으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불자들이 새벽과 저녁예불에서 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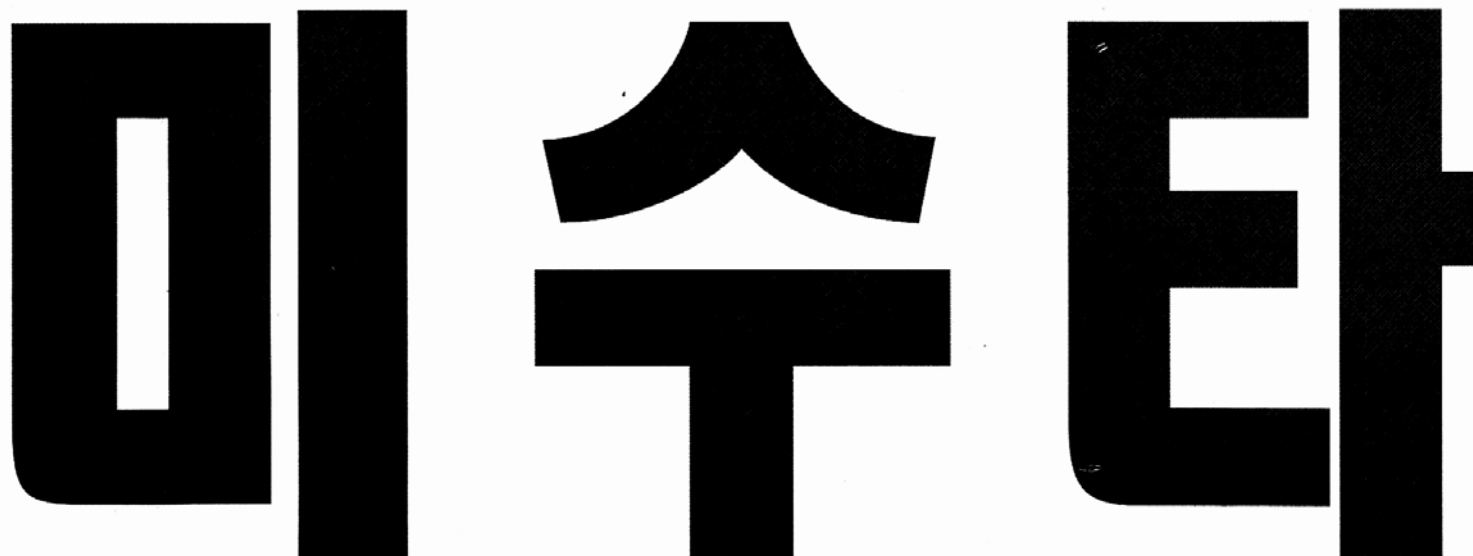


성기서

서원대 교수
영역교육

지 않고 되풀이하는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시에 불도를 이루어지이다”하는 서원이 참된 발원이다. 동남아 일대의 불교국가에서 지송되는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든, 동물이면 식물이면 남김없이, 길거나 커다란 것이든 중간이건 짧건, 미세한 것일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든,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생겨난 것이건 생길 것이건, 모든 삶은 행복하기 빕니다”라는 발원을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적어도 불자의 자비행은 상에 머물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평등하고, 서로를 최상의 행복과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상표등록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 1. 전남 1. 서울.
경기 2. 충북 1. 충남 1
◆본 미추터 반도체 안전 전구와 미추터 반도체 전자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경북, 북부대리점
영주 054-635-9153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1-8871 792-8867~8